

# 〈야인시대〉 유감

김은남 / 시사저널 문화팀장

**내**가 내 돈 내고 본 무협 영화는 〈황비홍〉이 처음이었다. 피 흘리는 영화라면 질색인 내가 무슨 맘으로 그 영화를 보려 했던 것인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영화를 본 뒤 내가 무협 영화에 훌쩍 빠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허황되게 하늘을 나는 와이어 액션 대신 정직한 몸 놀림으로 상대의 급소를 전광석화처럼 파고드는 이연결을 보며 나는 ‘남자의 육체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하는 전율을 느꼈다. 그 뒤 한국 영화 〈장군의 아들 1〉을 보며 나는 그같은 전율을 다시 맛보았다. 특히 주먹 세계에 갓 입문한 김두한과 일본인 유도 선수 오찌아이가 종로 저잣거리에서 맞붙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예술이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상대를 탐색하던 문제의 장면에서 검정색 플라티를 입은 김두한의 그 사내답던 자태라니!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 눈을 뜨면서 나는 그간의 환상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했다. 김두한은 청산리 전투를 이끈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자 약관 18세의 나이로 종로 주먹계를 평정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렇지만 온갖 증언과 사료를 통해 알게 된 바 그는 영화에 서처럼 일본계 조폭 두목 하야시와 원수지간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야시와 그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김두한에게 매달 용돈을 주었던 하야시는 일본이 패망한 뒤 그에게 남은 한국 돈 일체와 일본도 한 자루를 선물로 남기고 갔다), 항일 투사도 아니었다. 특히 해방 정국에서의 그는 협객은커녕 악명높은 청부 테러리스트에 가까웠다. 파업 현장에 쳐들어가 주동자들을 생매장하는가 하면, 노조 간부들을 몰래 납치해 강물에 산 채로 던져 버리는 그

의 테러 행위 때문에 당시 좌익 진영에서는 “경찰에 걸리면 살아도 청년단(김두한이 이끌던 청년 조직)에 걸리면 죽는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그뿐인가. 정치권과 밀착해 청부 폭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권을 챙겨 조직을 건사한 그의 방식은 훗날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 원형이 되었다.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야인시대〉 때문이다.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이 드라마가 연일 인기 상종가를 치면서 요즘 남자 중고생 사이에는 김도깡(김두한의 일본식 이름)을 모르면 화제에 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모래시계〉 방영 이후 조폭을 꿈꾸는 청소년이 부쩍 늘었다더니, 이번에는 〈야인시대〉가 그들의 피를 끓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방송사가 폭력에 이토록 관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수들의 염색 머리조차 허용하지 않던 보수적인 방송사가 유리컵이 절반쯤 깨져 있는 위로 사람을 내던지는 장면을 스스럼없이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직 폭력배를 검거했다는 뉴스 바로 뒤에 폭력을 미화하는 드라마를 내보내는 방송사의 이중성 또한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쨌거나 ‘폭력의 미학’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멋진 결투 장면이나 남자들의 의리 따위로 겉포장을 그럴싸하게 한다 해도 〈모래시계〉의 태수나 김두한은 정치 모리배에 고용된 하수인이자 힘 없는 사람들을 등쳐 조직을 건사한 강패 두목이었을 따름이다. 이들을 닮았다고 덤비는 청소년이 있다면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드라마는/드라마일 뿐/따라하지/말자!” **PTV**